

조기검진으로 치매 두려움 해소한다

전주시보건소, 협약병원 의원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 대상 무료 치매선별검사 실시

전주시가 치매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치매교육과 치매예방사업, 정기적인 치매검진 등을 통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전주시 노인인구의 15%(인 17,000여명)를 대상으로 조기 치매검진을 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관리법에 의해 만60세 이상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협약 병·의원 30개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최근 기억의 감퇴 △언어사용의 어려움 △시간과 장소의 혼동 △그릇된 판단력 △익숙한 일처리의 어려움 △같은 말의 반복 및 질문 되풀이 △돈 계산의 어려움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등으로, 노인성 치매의 경우 서서히 진행돼 가족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또한, 검진결과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월 3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요양비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석 △실종노인 찾기 사업의 일환인 인식표 제공 △재가 치매노인에 대해 가정방문하여 사례관리와 영양제 지급 등 조호물품 등이 지원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관

할 주민센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행복한 두뇌 건강교실'을 매일 운영, 반복된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남은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치매환자가족 지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총 16회기에 걸쳐 '헤어질 가족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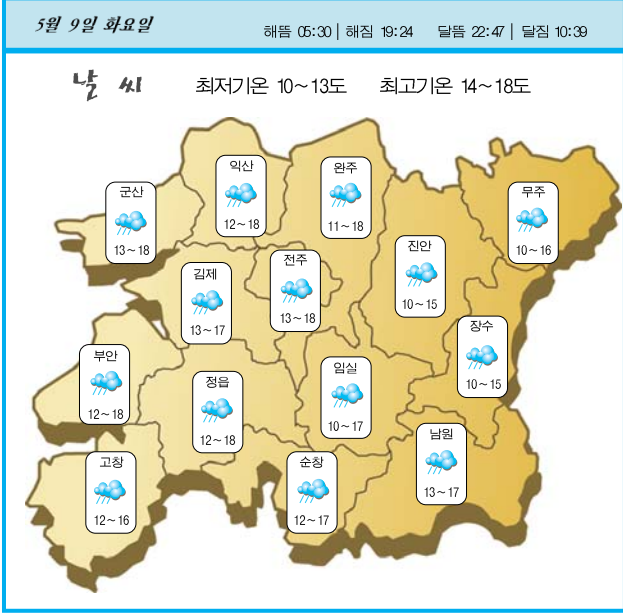
보건소는 교육을 수요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가족자조모임'과 연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치매상담센터는 비록 치매를 앓더라도 거주지 안에서 지역사회 구

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988 행복마을' 시범사업을 풍남동 승암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와 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센터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는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이며, 그 중 가장 좋은 예방은 검진"이라며 "가정의 달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치매환자가족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해 빈틈없는 치매예방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 81,555명 중 치매 추정 인구수는 8,074명으로 치매상담센터는 4월 말 현재 총 8,0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원광대 대학학과체험 박람회 익산지역 중학생 1453명 참여 진로 탐색 체험

원광대학교에서 오는 12일 열릴 전국 규모의 대학학과체험 박람회에 익산시 관내 중학생 1453명이 참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익산교육지원청 혁신진로탐색에서는 그간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호간 협의를 해왔으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학과체험박람회에 처음으로 관내 중학생을 수용하여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익산혁신교육특구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환영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원광대는 지난달에도 같은 행사를 치렀으며 참여한 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일정을 선택한다. 내달에는 중학생 168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만 모두 3100여명

의 학생이 대학학과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12일 박람회는 30여개의 학과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원광대 링크사업단에서 제공하는 3D프린팅교육, 로봇가제작을 통한 LOT 체험 프로그램, 레고 MIND STORM을 이용한 로봇제작, 드론 제작 및 조종 등에 관한 체험부스가 추가되어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및 체험부스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원광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밀착형 진로직업 체험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내 진로체험처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체험 참여를 위한 사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교육활동 종료 전 '개방 제한'

등하교 시간·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 외부인 이용 제한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종료 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에는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특정한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3~4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장기 임대할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분기 또는 반기,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대상 시설물 대여기간과 시간을 명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관계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의 예배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읍중 휴연, 영리행위 등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학교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도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교통경찰 괴롭히는 미세먼지와 매연 전복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어느 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개방현황은 총 711개 시설 중 운동장 89%에 이른다. 또 체육관은 총 535개 일 68%에 이른다.

은 평일 78%, 토요일 88%, 공휴일 시설 중 평일 69%, 토요일 69%, 공휴일

마한교육문화회관, 가족 문화 어울림 교실 운영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허희준)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세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자 오는 13일부터 '가족 문화 어울림 교실'을 운영한다.

독서 스토리텔링·역할놀이·생활속 안전교육·천연염색·점토공예 등 독서·안전·미술 등의 분야별 주제로 체험 중심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8월까지 총 13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는 전통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역사 탐방·전래놀이14책력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가족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은 학교를 바꾸는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